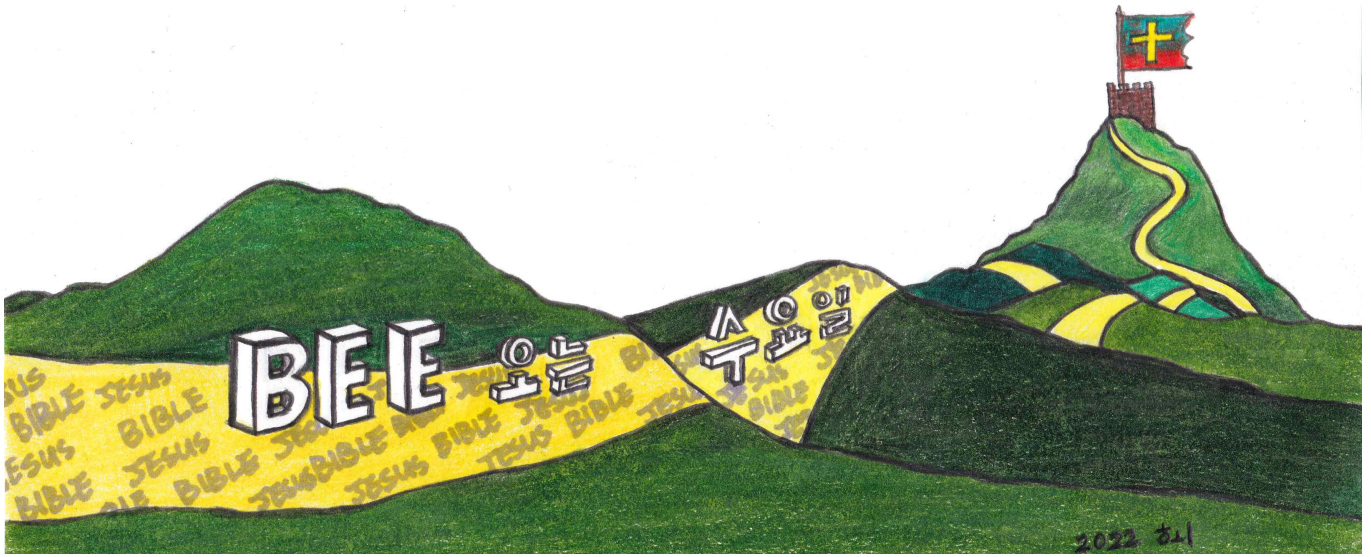




아홉번째 이야기

즐기로운 퇴임 생활

[신앙에세이④]



지난 2월 말로 29년 교수 생활을 은퇴하였다. 우선 드는 생각은 그 긴 세월 동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어 참 감사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과의 어느 교수님은 40대 중반일 때 산에 갔다가 추락사하기도 했고, 10여 년에 가까운 강사를 마치고 이제 막 교수로 임용된 지 한 달 만에, 연구실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시기도 하였다. 대과 없이 건강하게 은퇴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교수 생활 전반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업적도 쌓았다. 후반에 들어서 BEE Korea를 만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BEE 사역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따름이다.

은퇴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건강이다. 작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에 부작용으로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가 와서 책도 못 보고, TV도 못 보는 일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정신이 번뜩 나면서 이러다가는 뇌졸중으로 가족들을 엄청나게 고생시키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해 초부터 수영과 PT를 시작했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몇 개월 사이에 7kg를 뺐으니 참 감사하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해외 BEE사역을 열심히 다닐 꿈도 있었지만, 당분간은 건강을 위해서 자숙하기로 하였다.

이번 학기는 즐기로운 퇴임 생활의 연착륙을 위해 BEE 세미나 1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다음 학기부터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묵상과 성경 공부에 좀 더 시간을 집중할 생각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용히 그러나 건강하게 BEE 사역을 하면서 살다 가는 것이 지금 내 꿈이다.



[글쓴이: 백인호 목사]



1999년 하버드대학 옌칭 연구소 (Harvard-Yenching Institute) 초빙교수로 안식년에 가서 보스턴 근교 교회의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일대일 양육자반을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되었고, 2000년 귀국해서 일대일 양육과정을 찾던 중 갈라디아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BEE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베트남 BEE 사역을 시작으로 방학 때는 해외 여러 곳에서, 학기 중에는 국내에서 여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22년 2월 29년 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정년퇴임 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헤롯의 향연

(도나텔로, 1425년경, 청동에 도금, 시에나의 산 지오반니 세례당 성 수반 조각)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가 도나텔로의 '헤롯의 향연'은 부조 작품으로 소실점이 보이는 선 원근법을 사용하여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마 14:10~11)' 라는 대목을 작품화한 것이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고 두 손을 올리며 놀라는 사람이 헤롯왕이고, 그 옆에서 소반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는 여성이 헤로디아며, 오른쪽에서 있는 여성이 헤로디아의 딸이다. 인물들의 표정과 감정이 극적으로 잘 묘사된 부조(회화작품과 같이 한 면에서만 볼 수 있는 조각) 작품이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5월 7일(토) 6:30, 드디어 서빙고에서 대면으로 BEE 토요기도모임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집합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대면으로 모여 선교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온라인 유튜브 송출 없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5).”